

남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 실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통한 자원 순환 유도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 평가를 실시한다.

남구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50~299세대 이하 공동

주택 118곳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7곳이다.

평가 지표는 전년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60점)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우수 실천 사례(20점), 공동주택 내 감량화 시설 운영 여부(20점) 3가지가 반영된다.

남구는 50~299세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각각 합산 점수가 높은 상위 공동주택 6곳을 선정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

이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 활동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00세대 이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LH천년나무 7단지외의 경우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위한 지렁이 사육 상자와 친환경 발효통을 설치,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배출량 7.15톤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35톤 가량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50~299세대 최우수 공동주택인 무등프라자 주월2차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지 않은 생선뼈와 달걀 껍데기 등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식재료 최소화 구매 및 음식 조리시 먹을 만큼만 조리하기 운동으로 폐기물 배출량은 45%까지 감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기만 기자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20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정성부문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종합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자치단체 평가 제도로, 서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생태학습도서관의 특화된 생태체험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대출권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온 점이 크게 부각됐다.

특히, 아이들이 생태체험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생태 나드리(NADLI: NAture, Dream, Library)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특화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 도서관 최초로 '생태도서관 탐험대', '푸른별 환경

캠프' 2개 프로그램이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에 선정되는 등 생태특화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어린이 생태 독서운동회,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앞서 열거한 각종 생태친화 프로그램 및 사업들과 함께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만족도 조사, 주민 호응도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환경 감수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다채로운 특화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지역 내 유일한 생태특화도서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북구 여성행복지원센터, 토크콘서트 강연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5일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가족 소통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초 개관한 북구 행복여울센터 내 '여성행복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잘 알려진 김 교수는 '존중과 배려,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족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행사 당일 강연 참가자를 대상으로 N행시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제는 ▲여성친화도시 ▲여성행복지원 ▲가족 소통 등 3단어이며 1단어를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N행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강연과 N행시 참가 신청은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이메일 또는 여성행복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강연이 주민들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여성행복지원센터가 광주YWCA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북구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3단계'에 지정됐으며 여성행복지원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성정책 홍보, 여성 네트워킹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광주 광산구는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지난 5월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이다.

광산구 지원규모는 약 1만5천가구로,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부터 7인 이상까지를 기준으로,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8인 이상인 경우엔 7인 기준을 적용한다.

광산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형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29일부터 7월5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맞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야 한다. 7월6일 이후부터 8월 1일까지는 생년월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잔액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형태로 해당 시설에 1인당 2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난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구,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성료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난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당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소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통행량 급증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미리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동구는 지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운초등학교, 광주남초등학교를 방문해 각 학교 교사와 학생을 비롯해 ▲동부경찰서 ▲동부 녹색어머니회 ▲동부 모범운전자회 ▲해병대전우회 동부지부 등 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차량 통행 및 학생 등 보행자가 많은 등교 시간에 맞춰

▲안전속도 지키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운전자·보행자 안전 수칙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캠페인에 참여한 녹색어머니회 한 학부모는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도 보행 안전 수칙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작품상 수상작